

## 21세기를 향한 ITU

### 1. 전기통신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

근대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능의 활용은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활동의 보더리스(Borderless)화, 세계(Global)화는 컴퓨터와 통신 융합 기술의 발전과도 맞물려 사회 각층의 정보화 및 OA화를 한층 더 진전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정보통신 지향의 고도화,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진전과 국제 정보 유통의 활성화는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를 촉진시켜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

본 소제는 일본 우정성 통신정책국 국제기획과에서 일본 ITU 협회 간행물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위성통신은 종래에 인텔세트(Intelsat: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계 및 인머세트(Inmarsat: 국제해사위성기구)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시스템 이외의 이른바 개별 시스템이라 불리는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화되고 있으며 양자간의 조정이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장  
베이커 타안네씨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본부 (제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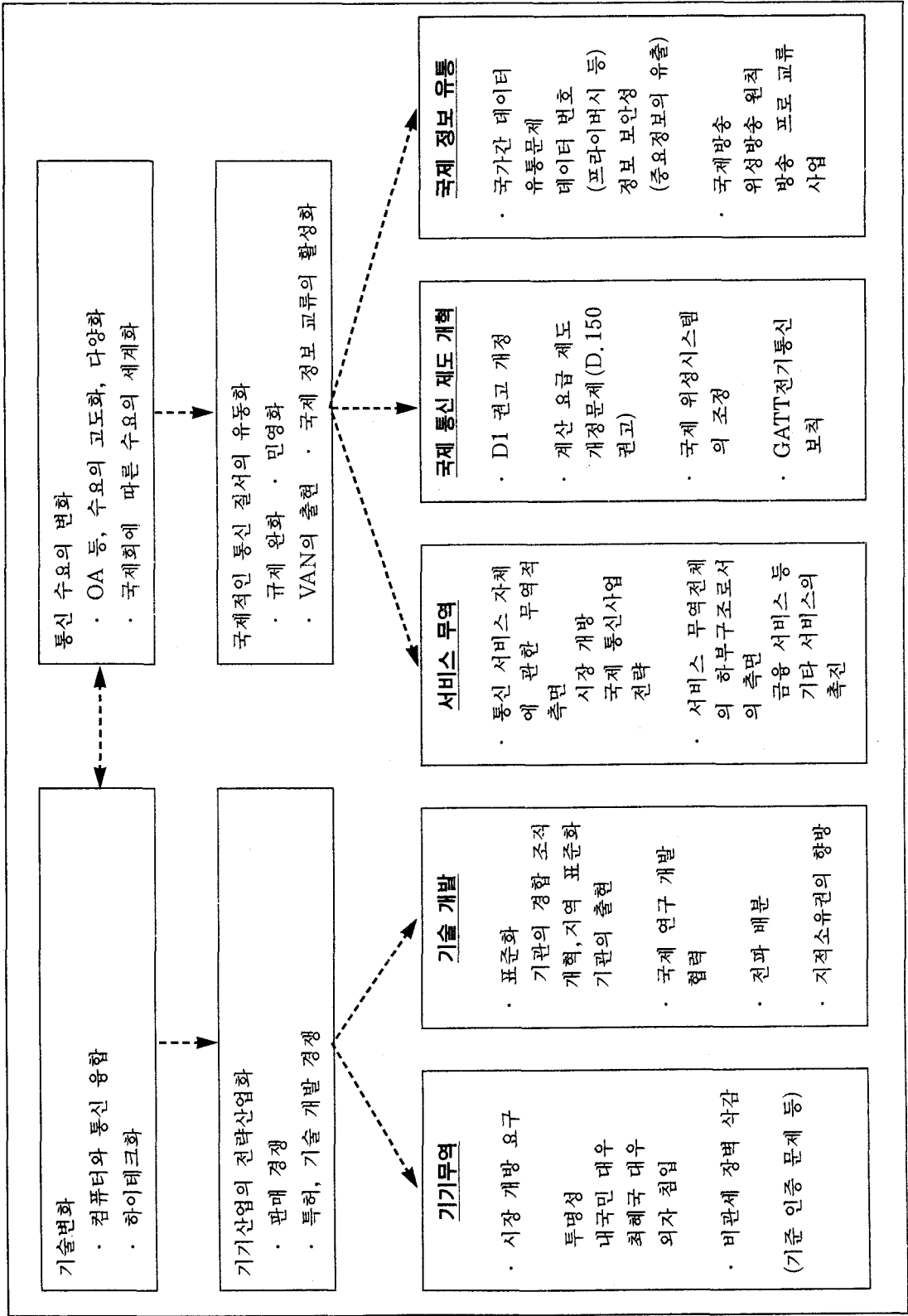
또한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 무역 교섭에서는 전기통신이 주요 서비스 부문으로서 지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시장 개방 정책 및 국제통신 사업 전략에도 관련되어 복잡한 국면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눈부신 기술 혁신과 국제 정보 교류의 활발한 기류에 편승, 구미 각국은 전기통신기기산업을 중요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표준화, 특히 기술 개발등에 중점을 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전기통신 하부 구조(Infrastructure)의 정비면에 있어서 남북간의 격차 해소 문제도 커다란 과제이다.

이상, 전기통신을 둘러싼 국제적 제과제(諸課題)는 그림 1과 같이 종합할 수 있겠다.

· 그림1. 전기통신을 둘러싼 국제적인 제과제 (諸課題)



## 2. ITU 역할 변화

1865년 파리에서 유럽의 20개국이 모여 국제전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국전신조약을 체결하여 만국전신연합을 결성했다. 또한 19세기 말 무선통신의 실용화에 따라 1906년 베를린에서 제1회 무선전신회의가 열려 국제무선통신연합이 설립되었다.

1932년 마드리드에서는 만국전신회의와 국제무선전신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어 양 연합이 통합,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족되었다.

그 후 ITU는 1947년에 아틀란타 시에서 회의를 개최, 국제연합과의 사이에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국제주파수 등록 위원회(IFRB)를 두어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 기능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협력이 ITU내에서도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각종 회의 및 시행착오를 거쳐 1989년에는 ITU에 전기통신개발국(BDT)이 설치되었다.

120년 여의 ITU 역사를 뒤돌아 보면 그 역할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는 ITU내에서의 국제전기통신의 제도·운영문제의 지위 저하이다. ITU의 본래 목적은 유럽의 국제전신업무 운용을 위한 약속였다. 예전에는 상세한 전신·전화 규제가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1988년 전신전화주관청회의에서 전문 10조로 구성된 매우 간략한 전기통신 규제로 되어 있어 각회(各回) 재량의 여지가 매우 크다. 국제 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SG)도 18개의 SG중 불과 한 개(SGⅢ)만이 주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두번째는 통신만의 세계적인 접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70년대 이후 통신의 디지털화에 따라 표준화 작업의 작업량은 증가일로에 있다. 또한 종래와는 달리 ITU의 표준화는 단지 국제망의 표준화에 그치지 않고 통신망의 세계화에 따라서 국내망에도 파급되고 있다. 게다가 표준화는 기술개발의 첨단분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어 통신 메이커로도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고 있다.

세번째는 주파수 관리 중요성의 증대이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무선의 이용은 선박통신과 단파방송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인텔새트의 출현과 함께 위성통신은 국제통신의 주역으로 등장, 우주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문제가 국제적인 각광을 받게 되었다. 위성통신이 도입된지 이미 4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최근에는 대륙간 대량 국제통신에 있어서 위성을 대신한 광케이블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위성통신에는 동보성(同報性), 회선 설정의 용이성, 이동체통신 등 위성만이 갖는 특징이 있으나 국제적인 주파수 및 궤도의 분배, 세계통신망의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존속될 것이다.

ITU는 이러한 면에서 보다 고도의 활동이 필요시된다.

네번째는 국제 협력 활동이지만 전술한 대로 BDT는 아직 미숙아로서 앞으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종 국제 협력기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북 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룬 인생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ITU에 부과된 임무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U는 계속 자신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고도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ITU에 기대되는 역할은 한층 더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ITU의 세 가지 기능 중 표준화, 무선통신, 개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현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 3. 표준화 기능의 현상

#### (1) ITU의 표준화 활동

ITU 및 ITU의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화기관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한 기술 혁신과 욕구 증대에 의해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ITU에 있어서 표준화(국제 표준의 작성) 작업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와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에서 실시하고 있다. CCIIs의 임무는 국제 표준을 작성하는 것과 무선국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지침을 지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권고 형태로 구체화된다.

CCIIs의 작업은 주로 총회가 설치하는 연구위원회(SG)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구위원회의 회합 등 CCIIs의 활동에는 주관청(主管廳)과 그 주관청의 참가 승인을 받은 RPOA(승인된 사기업) 및 SIO(학술공업단체, 업자단체, 메이커는 이것에 분류된다.)가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 요구의 다양화, 고도화와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의 스피드 향상 등에 의해 CCIIs의 활동중 RPOA, SIO의 공헌도가 질적·양적의 모든 면에서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현재의 표준(권고) 작성 작업은 우선 총회에서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권고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제 설정을 하고 담당 SG에 할당한다. 이 과제에 대응해서 각국에서의 투서형식으로 제출된 권고안이 SG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WP(작업부회) 회합에서 심의된다. WP회합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SG회합에서 정식으로 권고안으로서 승인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SG에서 이 권고안이 승인되면 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표준화 과정은 검토의 각단계에서 관계자간의 이해를 충분히 조정한 뒤에 표준이 설정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최근의 급속한 기술 진보 속에서 4년 주기로 열리는 총회에서밖에 권고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시일이 걸린다는 인식 하에 우편 투표에 의해 총회를 대신하여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ITU의 표준화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 (2) ITU 이외의 표준화 활동

ITU이외에서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의가 몇 개인가 있다.

그 가운데 주된 것은 「 ISO」 (국제표준화기구), 「 IEC」 (국제전기표준회의), 「 IS/IEC JTC1」 등 세 개의 국제기관과 소위 지역 전기통신 표준화기관에 의한 지역간 전기통신 표준화 회의이다.

### (가) ISO

ISO의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적인 규모로 표준화와 이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전기 일반을 제외한 공업 표준 전반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직위는 비정부기관이지만 일개국에 일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대표기관은 JISC(일본공업표준조사회)이다.

ISO의 활동 방법으로서의 특징은 각 작업위원회의 사무국을 각국에 분산해서 담당케 하는 것이다. 본부가 있는 제네바의 ISO사무국의 기능은 매우 축소했다.

### (나) IEC

IEC의 목적은 전기 및 전자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이에 관련된 문제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전기일반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ISO와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관이지만 일개국에 일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대표기관은 ISO와 같이 JISC이다.

### (다) ISO/IEC JTC1

ISO/IEC JTC1은 ISO와 IEC가 합동으로 설치한 표준화 기관이다. 표준화의 범위는 정보기술이며 ISO와 IEC의 쌍방에 관련되므로 합동으로 설치되어 있다.

ISO와 IEC처럼 같은 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개국에 일개 대표이다. 일본의 대표기관은 역시 JISC이다.

### (라) 지역간 전기통신표준화회의

국제표준화 작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미국의 T1위원회, 유럽의 ETSI, 일본의 TTC

등 세계의 지역(국내) 표준화기관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다. 기타 멤버는 CCIR 위원장 및 CCITT 위원장이다. 1990년 2월에는 제 1회 회합이 열려, 정보 교환을 밀접하게 할 것, CCIs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의 공헌을 강화할 것, 시장 교구를 CCIs에 반영시킬 것 등의 활동 지침을 종합 했다.

1990년 6월 CCITT위원장의 초청에 의해 특별 화합이 열려 우선 표준화분야로서 광대역 ISDN, TMN(네트워크관리), IN(인텔리젠트 네트워크), UPT(퍼스널 통신) 및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의 다섯 분야가 지정되었다.

지역간 표준화회의가 앞으로 CCIs를 대신하여 표준 작성의 주무대가 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 (3) 표준화기능의 변화와 대응

#### (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표준화

최근의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표준화 요구의 확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세계화에 따라 종래의 표준화 활동의 변혁이 불가피해졌으며, ITU로서도 세계적 접속성의 확보라는 견지에 서서 현재 및 장래의 전기통신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 활동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준화 욕구가 증폭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 수준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용화나 보급이 지연된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표준화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표준화 작업 자체에도 비용이 들며, 효율성의 저해에도 연관된다.

CCIs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전술한 총회에서 설립된 CCITT 특별그룹 회합에서는 작업 방법과 조직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그룹에서는 1988년 총회에서 도입을 결정권고 채택을 위한 우편 투표 절차를 앞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종래의 4년 주기 총회를 정례화한 권고회의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할 것을 검토중이며 우편 투표의 투표 기



한을 단축하는 문제도 계획하고 있다. 표준화를 위한 조직에 대해서는 SG의 수를 15에서 12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CCIR의 특별자문회합을 개최, 작업 계획 작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표준화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CCITT와 CCIR의 표준화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표준화 기관으로 하는 데에 관해서는 앞서 논술한 그대로이다.

#### (나) 관련 표준화기관과의 연휴

표준화는 앞에 논술한 각 기관의 각각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적 분야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각 기관에서 중복된 작업을 하기 쉽다.

작업의 중복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관계 메이커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사이에서 적당한 영역을 설정함과 함께 상호간의 정보, 검토 결과를 교환해 가는 일이 요망되고 있다.

ITU내에는 CCIR과 CCITT사이에 UPT(퍼스널통신) 및 FPLMTS(장래의 공중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합동 회합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CCITT의 총회 결의에 의해 ISO 및 IEC와의 작업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의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도 ISO/IEC JTC1과의 비공식 합동 회합 개최 등의 실적이 있다.

#### (다) 표준화 작업의 분산화

표준화 작업에는 기술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의한 작업량 증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SG에서 검토를 하기 전에 작업을 분산해서 타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시킨 다음 SG에 보고하여 권고를 승인한다는 방책이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CCIs 내에서는 특정 과제의 검토를 한 사람의 스페셜 위원에 위임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 종합된 결과를 SG에서 검토해 간다는 작업 방법을 취하는 일이 있다. 이 방법은 비생산적인 논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앞으로 ITU전체의 표준화 활동은 지역간 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 작업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 및 특정 지역의 표준화기관이 채택한 표준이 기형적인 형태로 국제표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간다는 상황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간 전기통신표준화회의나 지역 표준화기관과 ITU의 표준화 활동 사이의 관계 정립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대두되고있다.

일본으로서는 원활한 국제 접속성의 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편리, 세계적인 견지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의 공헌 가능성, 사업자, 메이커의 이익 등을 배려해 가면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공헌할 필요가 있다.

## 4. 무선통신 분야의 활동 동향

### (1) 무선통신분야의 활동

ITU에 있어서 무선통신분야의 활동은 무선주파수의 유효 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 주파수 스펙트럼의 유효성에 따른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공평한 이용의 확보, 능률적 사용의 확보)
- 혼신 방지의 필요성(국제적인 분배표의 작성, 사용 주파수의 국제간의 약속, 국제 조정)
- 운용 방법 통일의 필요성(조난 안전통신 등 국제적인 통신 소통의 확보,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ITU에서 무선통신분야의 활동은 주로 CCIR과 IFRB가 담당하고 있다.

「ITU COM'89」에서의  
HDTV 전시 풍경



제네바 시가 풍경 (ITU 본부 부근)



CCIR은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상·운용상의 국제적 표준의 작성, 주파수·궤도의 유효이용에 관한 기준 작성을 일부 하고 있으며 IFRB는 각국이 시행하는 주파수 할당의 등록 및 무선통신 규제의 통일적 해석을 임무로 하고 있다. CCIR의 임무는 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이 총회에 의한 채택이나 무선통신주관청의 무선통신규칙 개정이라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CCIR의 활동에는 주관청(主官廳), RPOA, SIO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어 RPOA, SIO의 공헌 정도가 증대하고 있는 점은 CCITT와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표준화 요구의 전권위원회에서 SIO도 총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 점으로도 알 수 있다.

CCIR의 권고는 작업부회(WG) 또는 작업 그룹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연구위원회(SG)에서 승인한 다음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어 있어 CCITT와 거의 동일하지만 채택의 신속함을 도모하는 견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가 도입되었다. 또한 장래적으로는 우편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하이레벨위원회에서는 CCIR의 네트워크 표준화 작업과 전파 스펙트럼 관리의 작업을 분할, 전자는 CCITT와, 후자는 IFRB와 통합해서 각각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CCIR도 이 인을 염두에 두고 특별 그룹 회합등 작업의 구체적인 영역 할당이 검토되고 있다.

## (2) RR의 수정과 IFRB 의 장래

한편, 현재의 무선통신규칙(RR)은 국제적인 주파수의 분배, IFRB에의 주파수 등록, 국제 조정 절차, 무선국의 운용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기술 개발 결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 또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비평이 있다. 그때문에 프랑스 니스의 전권위원회의에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할당 및 효율적 사용, 무선 통신규칙의 단순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자원자 전문가 그룹(VGE)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1990년 관리이사회에 의해 설립)

하이레벨위원회로부터 9항목으로 구성된 RR의 간소화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접수, VGE에서는 다음 새 분야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주파수대 분배에 관한 사항
- 주파수 할당의 이용에 관한 절차
- 운용 및 관리 규정

그 검토 상황은 1992년의 관리이사회에 중간보고, 1993년에 최종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의 IFRB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IFRB의 업무가 RR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VGE의 검토결과가 IFRB의 조직 구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IFRB 위원을 상근시킬 것인가 비상근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이레벨위원회에서 검토중인 규제위원회의 설치와도 표리일체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 (3) WARC-92를 향해서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WARC)의 주된 임무는 무선통신규칙(RR)의 개정이다. 이용 위한 기술적 검토는 CCIR의 SG(구체적작업은 TG)가 시행한다. WARC의 개최시기, 개최지, 심의분야 등은 전권위원회에의 1988년에도 정지위성 궤도와 우주사업에 관한 WARC가 개최 되었다.

오늘날 자동차 전화, 휴대 전화 등의 이동체통신 시스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점, 위성방송의 보급 및 HDTV등 방송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 단파방송을 위한 전파 할당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주파수 범위의 확대 혹은 신규 설정등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내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스펙트럼 특정 부분의 주파수 분배를 하기 위하여 스페인에서 WARC-92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현재, VGE가 시행하고 있는 RR의 간소한 작업 결과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RR의 근본적인 개정은 1994년 전권위원회의 후 WARC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 5. ITU의 기술 협력 활동 내력

### (1) ITU의 기술 협력 활동의 변천

ITU의 기술 활동은 아래와 같이 역사적 변천을 거쳐 확대되어 왔다.

1952년 국연확대원조계획(EPTA)에 참가. 기술 협력 활동을 개시

1960년 기술협력부(TCD)를 사무총무국 내에 설치.

1982년 국제전기통신조약에 ITU의 목적으로서 기술 협력 활동을 규정, 통상 예산에서 기술 협력 활동 경비의 지출 개시, 전기통신의 세계적 발전을 위한 독립 위원회를 설치

1987년 전기통신개발센터(CTD) 업무 개시

1989년 TCD를 전기통신개발국(BTD)에 개조 증강  
전기통신개발회의의 개최를 현장에 명기

1990년 BDT 업무 개시

ITU가 하는 기술 협력 활동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망의 창설, 확충 정비 등 기술 원조와 국제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기통신의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전기통신의 기술면, 설비면에서의 레벨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ITU는 원래 통신의 상호 접속, 상호 운용의 확보를 목적으로 공통된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배경으로부터 ITU의 기술 협력 활동은 ITU의 126년 역사 중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짧으며 기술 협력 활동의 전개는 ITU가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 되고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ITU의 기술 협력은 조직, 예산 및 활동 등의 면에서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1989년 프랑스 니스의 전권위원회에서는, 과거 사무총국의 한 무

분었던 기술 협력부(TCD)를 개조해서 새롭게 전기통신개발국(BDT)으로 활동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것은 ITU가맹 164개국 중 8할을 점유하는 개발도상국의 요망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 협력 활동의 확대에 따라 그 경비가 ITU예산의 커다란 부분을 점하게 되었다.

## (2) 기술 협력 체제

ITU의 기술 협력의 실시는 BDT와 CTD에서 수행되고 있다. 기타, 표준화 부문 등에 있어서도 각종 협력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 (가) BDT

BDT의 활동은 크게 국연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 실시 부문과 ITU의 통상 예산 가운데 독자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부문의 둘로 대별할 수 있다.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UNDP부문의 신장률이 정체 및 감소 현상인 데 반해 통상 예산의 신장률은 1989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단, 절대액으로 보면 여전히 UNDP부문이 점하는 지위는 크다.

#### (a) 국연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 실시부문

프로젝트 경비는 UNDP자금에서 지출되며 ITU로서는 UNDP프로젝트 자금의 13%에 상당하는 관리운영비(약 6.5억엔, 1990년)를 UNDP로부터 받아서 사무국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독립채산제).

#### (b) ITU독자의 프로그램 실현

ITU의 통상 예산중 약 15억엔(1990년)이 기술 협력 활동에 쓰이고 있다.

#### (c) 협력 활동

BDT가 수행하는 기술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개발 프로젝트(특정국, 지역)
- 2) 기술 협력 전문가의 모집, 파견

- 3) 장려금 지급
- 4) PLANITU 프로젝트(망 계획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
- 5) 인재 관리, 인재 개발 활동(CODEVTEL, ISS등)
- 6) 각종 세미나의 개최
- 7) 기술 협력을 위한 특별 임의 프로그램의 실시 촉진
- 8) 신탁 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실시
- 9) 보조 전문가의 모집, 파견(경비는 파견자 부담)
- 10) 기재, 설비의 제공
- 11) 전기통신개발회의 개최

(나) CTD

CTD는 전세계 사람들이 동등한 통신 서비스의 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협력 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독립위원회의 보고서(Missing Link)의 제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CTD의 특징은 ITU의 기관이면서 활동 자금의 약 50%를 민간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문 위원(위원은 민간 출신자도 포함한다)을 두어 활동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심의 승인하고 기술 원조의 제공자(선진국), 수익자(개발도상국)가 같이 만나 원조 방침을 결정해 가는 매우 유니크한 기관이다.

CTD의 활동 자금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현금, 현물 제공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1990년대의 예산(실효)은 약 3.5억엔이며 일본은 최대의 공헌국으로서 28.9%를 제공했다.

최근의 CTD의 활동은 회소 재원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단기 미션의 파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 국제자문위원회(CCITT, CCIR)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의 기술 협력 활동 으로서는, 1) 특별자주작업부회(GAS)에 의한 핸드북 작성, 2) 플랜위원회(전기통신망 계



획 작성, 각종 세미나 개최), 3) 무선통신분야의 기술 협력(전파 전반등) 등이 시행되고 있다.

### (3) 앞으로의 과제

현재, 하이레벨위원회에 있어서의 BDT와 CTD와의 합병 등 기술 협력 활동의 관리 방법 및 예산 확보 방법 등에 관해 심의가 열리고 있다(결론은 6월 관리이사회에서 결정). 이것은 전기통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한층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협력 체제 구축이 급선무라는 국제적인 공통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년, 진바브웨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전기통신회의에서는 수혜국의 국내 정책에 관해 우편과 통신의 분리, 규제기관과 운영체의 분리, 또한 통신사업 외자 규제의 완화 등의 결의 및 권고가 채택되는 등 원조의 수혜측의 체제도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ITU의 협력 활동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 6. 하이레벨위원회의 검토 상황

ITU하이레벨위원회(HLC)는 ITU를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이 신속하게 대응시키고 효율적인 조직, 기능을 겸비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하이레벨위원회는 ITU활동의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는 21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전 IFRB위원회의 구리바라씨(재단법인 무선설비검사검정협회 이사장)가 참가하고 있다.

작년 1월 1회 회합이후 지금까지 6회의 회합(비정식 회합을 포함)을 열어 다음과 같은 분야의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Task 1 표준화

Task 2A 규제: 무선통신

Task 2B 규제: 전기통신

Task 3 개발

Task 4 연합의 회의

Task 5 사무총국

Task 6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

작년 9월에 Task 6의 비공식 회합에서 타리안네 사무총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직 개정 사안이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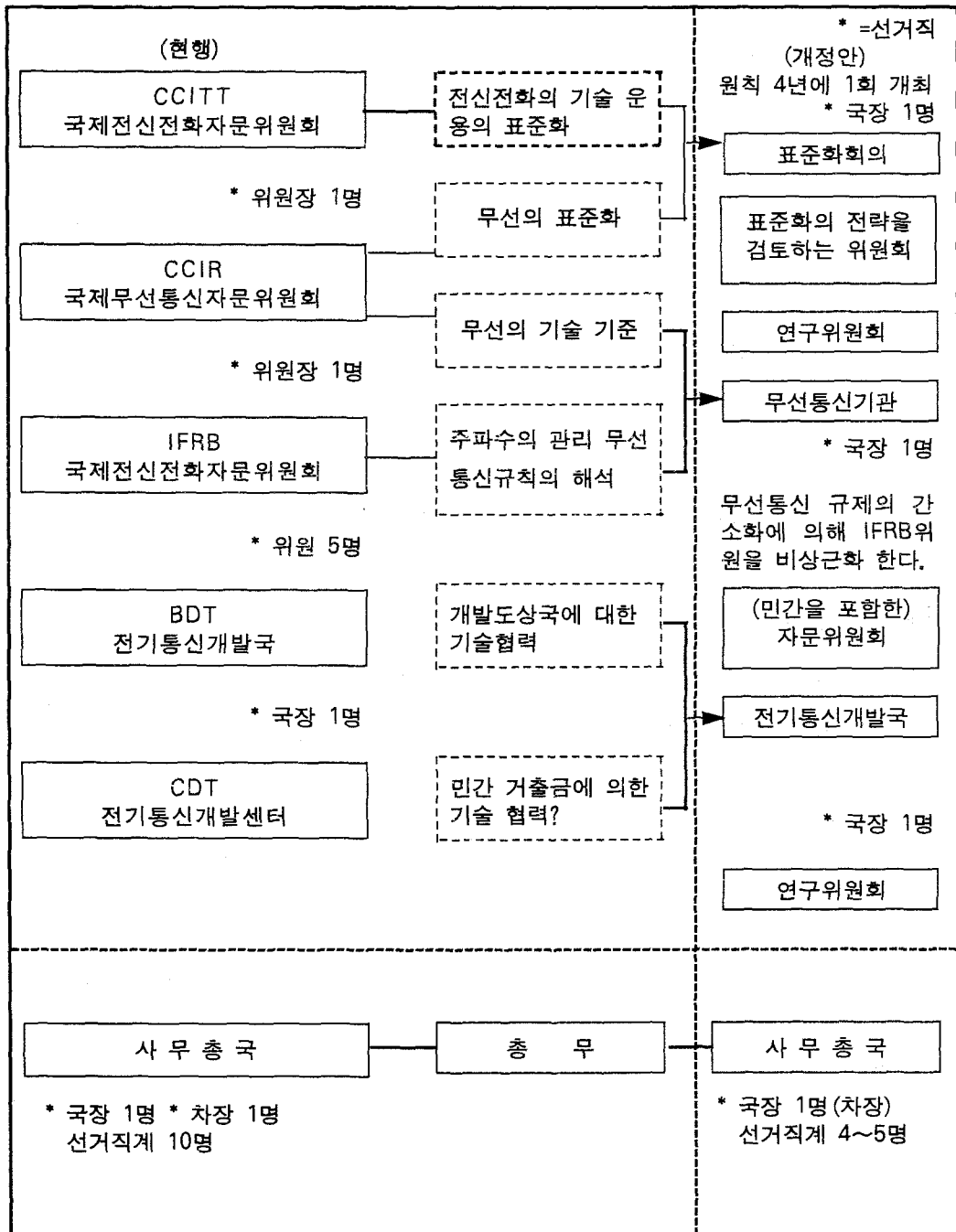
(가) 표준화문제에 대해서는 CCIs를 폐지하고 새로운 하나의 기관을 만든다.

(나) RR의 간소화를 전제로 IFRB의 위원회 조직을 개정해서 단독 국장에 모든 규제를 맡긴다.

(다) 전기통신개발국(BDT) 과 전기통신개발센터(CTD)를 합병한다.

그 후 하이레벨위원회에서는 이 제안을 토대로 검토가 진행되어 제 4회 회합(1991. 3) 후의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지가 종합되었다.

그림2. ITU의 조직 개정안 개요



### (1) 표준화 작업 관계

CCITT와 CCIR의 표준화 작업을 통일, 하나의 표준화기관을 만든다. 또한 작업 방법으로는 총회에 상당하는 표준화회의, 표준화자문그룹회합(표준화 연차 작업 계획의 진행 관리), 종래와 거의 같은 기능의 연구위원회로 구성되는 3레벨 검토 체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 (2) 무선통신분야

종래, CCIR과 IFRB에서 시행한 무선통신의 기술 기준, 주파수의 관리, 무선통신규칙 해석 등의 작업에 대해서 상기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무선통신기관을 만든다. 또한 작업 방법으로는 총회에 상당하는 무선통신회의, 종래 상근이었던 IFRB위원을 파트타임화 한 형태(사람 수, 구성 방법 미정)의 무선규제위원회, 종래와 거의 같은 기능의 연구위원회로 구성되는 3레벨의 검토 체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 (3) 기술 협력 관계

전기통신개발센터(CTD)를 전기통신개발국(BDT)에 병합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CTD의 활동을 병합하지만 BDT내에 새로운 조직은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BDT의 운영 등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 그룹을 만드는 것 이외에 개발 SG를 조직해서 특정 문제의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CCITT의 GAS(특별자주작업부회)의 작업은 SG에 계승된다.

세계개발회의는 기술 협력 활동의 작업 계획을 책정하여 BDT의 감독을 수행, 지도를 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지역개발회의는 종래의 기능 외에 BDT에 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플랜위원회의 활동은 개발회의가 계속하게 된다.

### (4) 사무총국

사무총국장 밑에 전략기획조직을 설립한다. 이 조직에서 책정된 계획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관리이사회를 결정을 거쳐 실행에 옮긴다.

이상, 지금까지 하이레벨위원회에서의 검토 상황을 논술했지만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계속 세부사항 및 미 결정 사항의 검토를 한 다음 금년 5월에 있는 ITU 관리이사회에 보고된다. 이것을 보고받아 동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조직 개정이나 관계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하이레벨위원회의 제4차 회합 직후 ITU조직 개정안은 그림 2와 같다.

## 7. ITU 전권위원회의(1994년)의 일본 개최 의의와 준비 상황

1989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의에서 차기 전권위원회의는 1994년 일본에서 5주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 (1) 전권위원회의의 일본 개최 의의

만국전신연합의 창설 이래 1세기 이상의 ITU역사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권위원회의가 개최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세계로부터 일본의 국제적 공헌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권위원회의의 개최는 일본의 국제적 위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정된 본 전권위원회의에서는 40년여 존속해 온 현재의 ITU조직의 수정(기술 혁신 및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규율·조직으로의 이행 등)의 심의가 될 전망이다.

### (2)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우정성 내의 ITU 전권위원회의 준비실을 설치(1990년 7월)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원활한 연락, 조정 및 협력 하에 일체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보다 앞서 ITU 전권위원회의 실시협의회(회장: 나카무라 우정사무차관)를 설치(1990년 5월)했으며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당면 준비과제 중 하나였던 개최지의 선정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1일에 개최된 동 실시협의회에서 국내 개최지를 교오도시(국립 교오도 국제회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 8. 끝맺음

ITU는 지금까지 백 년 이상 동안 국제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국제기관으로서 존속해왔다. 이 기간 동안 각종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보여 준 사실은 이미 논술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기통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종래의 연장선상에서는 대처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니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기초로 설치된 하이레벨위원회는 금년 5월에 관리이사회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논문의 제 6장에서 본 것처럼 상당한 변혁을 내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상기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전기통신분야에서의 국제적 조정은 다양화, 복잡화가 더욱 더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관계가 있는 국제기관도 OECD, GATT, UNESCO, 관련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 ISO 등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ITU가 21세기를 향해서 그 존재 의의를 확고히 다져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 국제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도 세계의 정보통신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ITU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